

50대 남녀의 기대은퇴연령에 관한 연구: 누가 빠른 은퇴를 원하는가?*

차승은**

이 연구의 목적은 50대 예비은퇴군을 대상으로 누가, 언제 은퇴를 단행하고자 하는지 그 은퇴시점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기존의 은퇴계획에 대한 연구들은 은퇴준비, 은퇴에 대한 태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 왔는데, 이 연구는 기대은퇴연령 항목을 활용하여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은퇴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탐색하였다. 2008고령자패널(KLOSA)자료 가운데 도시거주 취업자 1,367명(여성 34.8%)에 대한 자료를 추출하였다. 연구결과, 기대은퇴연령에 대한 질문에서 은퇴시점을 제한하지 않고 계속근로를 기대한 사례가 전체의 44%를 차지하였다. 은퇴시점을 65세에서 70세로 조금 늦게 인식한 경우도 전체의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통상적인 은퇴시점(60~64세)보다 더 연장해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기대은퇴연령과 연계하는 사회적 특성들을 살펴본 결과, 성별과 단시간 근로여부, 임금근로자 여부는 빠른 은퇴기대와 관련이 있는 특성으로 파악되었다. 반면에 신체적 건강, 경기에 대한 비교적 긍정적 전망을 하는 경우 늦은은퇴를 기대하였다. 계속근로를 예상하는 응답자들은 가계소득수준이 낮았으나 이들의 직업만족도는 다른 집단과 비교해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은퇴과정에서의 탈정형화가 은퇴시점부터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노년기 불평등성을 최소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핵심단어: 은퇴, 기대은퇴연령, 조기은퇴, 늦은 은퇴, 시간조망, 은퇴에 대한 인식

I. 문제제기

최근에 베이비부머세대의 대량퇴직을 앞두고 제기된 사회적 우려는 이들이 한꺼번에 퇴직할 때 연금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두려움과 이어져 있다. 연금수령시기와 퇴직시기의 간극, 연금수령액, 연금준비와 같은 재무적인 차원의 논의도 결국은 이 은퇴예비군이 “언제 은퇴를 단행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수렴한다.

* 소중하고 의미있는 논평을 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세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수원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전임강사 | secha@suwon.ac.kr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으로부터 완전히 퇴장하고 더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시기를 은퇴라고 본다면, 노년기의 시작인 65세 전후가 적절한 은퇴시점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 수행된 연구논문이나 정책보고서들에 따르면, 50대에 이미 실질적인 완전은퇴를 하여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한 사례가 상당수에 이른다(김원섭·이정우·한정립, 2009). 이와 동시에 노인으로 분류되는 65세 이후 70세 전후까지 노동시장에 남아 있거나, 일정수준 일자리를 가지고 유급노동에 종사하는 경우도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노동리뷰, 2009). 실제로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으로 인해 주된 일자리와 완전은퇴의 중간 기간에 갖는 직업경력을 보유한 고령자의 규모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서(방하남, 2009; 황명진·정승환, 2011) 이들의 은퇴시점은 더욱더 가능하기 어려워졌다.

은퇴 시점상의 분화는 비단 우리사회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연금정책으로 은퇴문화가 비교적 잘 짜여있다고 알려진 서구사회에서도 조기은퇴자, 고령노동자 등이 함께 공존하면서 연금수급시점에서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일차적으로는 인구고령화로 인하여 연금지급에 부담이 가면서, 고령자노동을 정책으로 강조하는 분위기로 돌아서고 있다(Soidre, 2005).¹⁾ 노년기에 여가와 소비위주의 삶을 지향하던 유럽 사회에서도 이른바 “일하는 노인 인구”가 대거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고령노동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는 미국의 경우는 오히려 조기은퇴를 선택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전광희, 2003).

다양한 사회정책의 실현을 통해 노년기에는 건강과 소득 면에서 생애궤적의 차이를 극복하고자 한 서구의 복지모델도 약간의 수정이 불가피해 졌다(Kvist·Fritzell·Hvinden and Kangas, 2012). 서구사회에서도 성인 및 중년까지 가족역할, 직업역할로 상이하게 존재하던 삶의 궤적들이 노년기 은퇴라는 노동시장으로부터 퇴장시점을 전후로 그 차이가 확대되면서, 노년기 불평등성이 증폭되는 증거들이 포착되고 있는 것이다(Barnes-Farrell, 2003; Denton & Spencer, 2009; Moen, 2003; Wang, M. Y · Zhan, S. Liu and K. S. Shultz, 2008).²⁾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여 현재 50대 은퇴 예비자들이 언

1) 스웨덴에서도 1990년대까지 빠른 은퇴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1999년에 이르면, 연금정책을 대폭 수정하면서 고령자의 조기은퇴를 막고 있다. 조기은퇴연금의 경우 61세까지로 연장하여 61세 이하에 연금을 수령하고자 하면, 일정금액 감액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그에 비해 70세이상으로 연금지급시기를 연기하게 되면 이후 연금지급액에서 일정비율 크레딧을 받도록 되어 있다.

2) 직업적 은퇴가 이루어지는 시점은 가족 내에서 역할변화, 세대 간 권력이동, 건강상실이 함께 맞물리는 이른바 통합적 상실을 겪는 시기이다. 개개인에 따라 직업 및 가족, 건강상태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통합적 상실 경험은 개인수준에서 차별적으로 구성되며, 이는 노년기 생애궤적의 개별화 과정을 더욱 촉발하게 된다. 모엔(2003)은 이러한 노년기로의 전환점을 인생에서의 midcourse라고 명명하며, 그 시기적 특성을 강조한 바 있다.

제 은퇴를 이루고자 하는지 그 시점(timing)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고령자패널조사(KLOSA, 2008)에서 나타나는 기대은퇴연령에 대한 인식 항목을 집중적으로 탐색하였다. 예비은퇴자(50대)를 대상으로 그들은 언제 은퇴를 이루고자 하는지, 은퇴예상의 시점에 대해 얼마나 다양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과연 누가 은퇴시기를 빠르게 혹은 더 연장해서 기대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II. 관련연구고찰

1. 은퇴시점에 대한 기존연구와 주요쟁점

지금까지의 은퇴시점에 관한 연구의 주류관점은 사람들이 '언제 은퇴를 했는가'를 밝히는데 있었다. 관련연구로는 대표적으로 사건사 분석을 통해 직업궤적(work trajectory)을 살펴본 연구들이 있다. 취업자들이 어떠한 직업변화 과정을 거쳐, 근로생애를 마감했는지 그 과정을 추적한 것이다. 노동시장의 진/퇴출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을 위해 패널자료나 혹은 직업력(work career history)에 관한 자료가 주요하게 활용되었고, 은퇴로 이르는 다양한 직업력 패턴과 규칙성을 분석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서구연구로는 한신갑과 모엔(1999)의 연구가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될 수 있으며, 국내연구로는 박경숙(2001, 2003), 장지연(2003), 이성용·방하남(2009b), 그리고 최옥금(2011)의 연구가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이들 선행연구들을 통해 은퇴에 이르는 과정이 직종이나 직업적 특성(i.g. 고용불안정성, 산업체 종류, 근무환경)에 따라 얼마나 다양한지를 밝히는 의미 있는 작업들이 이루어졌다.

직업적 특성 외에도 가족역할과 직업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은퇴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주목한 연구도 있었다. 이재열(1996), 은기수·박수미(2002)의 연구는 젊은 기혼 여성의 출산경험과 노동시장 은퇴시점이 맞물리는 상황을 유형화를 통해 밝혔다. 이와 유사한 작업을 고령여성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가 최근에 이루어졌다. 홍백의·신유미·공주영(2009)은 배우자의 은퇴시기와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결정이 어떻게 조율되는지 살펴보았다.

한편, 노동생명표에 관한 연구들은 출생과 사망에 이르는 기대여명의 개념을 활용하여 노동시장의 이탈이라는 노동생명의 종료시점을 예측하는 작업이었다(박원란, 2001; 황수경, 2005; 우해봉, 2011). 기존의 직업궤적연구를 조금 더 발

전시켜서 노동시장으로부터의 퇴장시점에 대한 예측을 시도한 것이다. 노동생명표 분석은 기대수명분석이 출산과 사망의 두 시점을 비교하는 것과는 달리 노동시장 입장/퇴출이 단순하지 않다는데 분석의 어려움과 분석상의 제한점이 노출되기도 하였다(우해봉, 20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동생명표 관점은 직업계적연구에 비해 ‘언제’ 은퇴를 하는지, 얼마나 오래 노동시장에 남아 있는지, 그리고 노동시장 퇴장 후 얼마만큼 생존하는지와 같은 시간의 차원을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성과라고 판단된다.

사건사 분석이나 노동생명표 연구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모두 관찰기간이 비교적 긴 패널조사에 나타난 직업력 정보를 활용해 왔다. 은퇴와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있으나 고령층 이외에도 상당히 넓은 연령층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은퇴에 이르는 과정의 차이를 분석하는데는 직업력이나 노동생명표 모형이 유리하였으나,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차이점들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어려움에 따라 은퇴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의 집단 간 차이 혹은 집단 내 차이를 밝히는데 일정부분 한계가 있었다(우해봉, 2011).

때문에 선행연구에서 은퇴를 앞둔 예비은퇴군의 행태를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은퇴준비나 은퇴계획에 대한 논의에서는 평균적인 패턴을 아는 것과는 별도로, 은퇴를 단행할 바로 다음 세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조기퇴직하여 연금으로 생활하는 사례가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고령에도 노동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고령노동과 연금으로 비교적 풍족한 생활을 사는 사례들이 복잡하게 공존하는 상황에서, 예비은퇴자들의 선택은 무엇이며, 은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더욱이 최근 은퇴논의들은 우리 사회에서는 최근에서야 생애과정상 “주된 직업”과 기대여명의 증가 그리고 연금정책으로 은퇴사건을 경험하는 세대가 출현하였음을 상기시킨다(석재은·이기주, 2010; 이성용, 방하남, 2009b; Park, 2006).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나서야 20대 청년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하여 ‘평생을 몸담아 일한 직장으로부터 은퇴한 사례’가 등장하였다. 산업화 이전에는 대다수가 농림어업이나 광업과 같은 일차산업종사자였기에 은퇴라는 생애사건이 큰 의미를 지니지 않았던 시대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Park, 2006). 그런가 하면, 이러한 ‘은퇴세대’의 등장과 거의 동시에 인접한 후발세대는 40대에 경제위기(1997년), 50대에 금융위기(2008년)를 겪으면서 퇴직시점이 다양하게 전개되는 경험을 했다(방하남, 2009). 이러한 50대 예비은퇴자들의 삶의 궤적에서 완전은퇴가 하나의 ‘생애사건’으로서의 명확한 흔적이 남겨질 지 현재로서는 모

호한 상황이다. 최근의 중장년기 근로생애에 관한 연구들은 한국사회가 압축적 근대화 과정(장경섭, 2000)을 겪은 만큼이나, 개인수준에서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과정은 역시 개별 세대마다 상이하게 구성된 ‘압축적 다양성’을 경험하고 있음을 지적한다(장지연·신동균·신경아·이혜정, 2009). 이처럼 은퇴사건에 대한 경험에서 세대차가 존재하고, 그에 따라 은퇴과정이 상이하게 구성된다는 이 독특한성은 분명 한국의 은퇴과정과 그것을 둘러싼 은퇴담론을 분석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일 것이다. 이 연구는 예비은퇴자 집단을 중심으로 그들이 인식하는 노동시장 퇴장시기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기존의 은퇴패턴에 대한 지식에 보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2. 기대은퇴연령의 개념과 의미

은퇴계획, 퇴직계획, 은퇴 및 퇴직에 대한 태도에 관한 초기 연구들을 살펴보면, 근로생애 마감을 의미함에 있어 퇴직과 은퇴의 용어차이가 명확하지 않았다. 최근 들어 가교일자리(혹은 징검다리 일자리), 부분은퇴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두 개념 간에 분리가 이루어졌다. 퇴직은 주된 일자리에서 일차적으로 물러남을 의미하지만, 이후 다시 재취업가능성을 담고 있는 개념으로, 반면에 은퇴는 근로생애를 완전히 마감하고 소득활동을 중단한 상태(장지연, 2003)로 정의되고 있다. 물론 어떤 개인에게는 퇴직과 함께 은퇴상태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연구가 살펴보고자 하는 기대은퇴연령이란 이 완전은퇴, 즉, 근로생애를 완전히 마감하는 시기를 뜻한다. 기대은퇴시점과 실제은퇴시점을 비교한 연구(Bernheim, 1989)에 따르면, 은퇴자들이 예상하는 은퇴시점은 은퇴시점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 가운데 하나이었다.³⁾

다만, 엄밀하게 보자면 기대은퇴연령이란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00세 쯤에는 은퇴를 하게 될 것 같다”고 예상하는 시기를 의미 할 수도 있고(은퇴예상연령), “00세까지는 일을 하고 싶다”는 희망을(희망은퇴연령) 내포한 개념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상 질문지에 나타난 문항으로 보자면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은퇴연령의 개념은 예상과 희망을 아우

3) 거의 30년 전 연구이나 이후 경제학 분야에서는 이 기대은퇴연령에 대한 인식에 관한 문항을 활용한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각종 패널데이터에 주요 문항으로 서베이 자료에 삽입되어 있다. 국내에서도 이 기대은퇴연령 문항이 고령자패널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르는 복합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기대은퇴연령의 내용상의 의미를 포착하기 위해 이 연구는 시간조망(time perspective)(Carstensen, Isaacowitz and Charles, 1999)개념을 도입해 보았다. 시간조망이란 시간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다. 여기에서의 시간은 순환적·일상적 시간이 아닌 생애(life course)라는 종적인 시간을 의미한다. 시간조망에 관한 이론에 따르면 지나간 시간과 남아있는 시간에 따라 개인의 심리와 태도가 달라진다고 한다(Carstensen, 2006). 남아 있는 생애기간이 짧다고 인식하는 경우, 모든 판단의 기준은 단편적, 일시적으로 바뀌며, 미래에 대한 전망보다는 현재의 정서적 안정에 더 집착하는 경향을 보인다(Lang and Carstensen, 2002). 그에 비해 잔존기간이 길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목표 지향적으로 살아가며, 삶의 태도나 새로운 정보습득에도 더 적극적이다. 대체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본인에게 주어진 시간은 짧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진다.4) 연령이 증가할수록 삶의 종착시점에 대해 인식하고 그것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선행연구들은 보고 있다(이가옥· 이지영, 2005).

이 연구에서는 기대은퇴연령의 개념을 '노동생애에 중단 시점에 대한 조망'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즉, 기대은퇴연령은 은퇴를 겪기까지 남아있는 시간 계좌에 대한 인식이다(Brown, 2009; Szinovacz, 1986). 현재 연령에서부터 기대연령까지의 지각하는 노동생애기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아직 은퇴를 겪지 않은 집단에게 기대은퇴연령은 '남아 있는 노동생애에 대한 개개인들의 진단'이 될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완전은퇴가 이루어지는 시기가 일반적인 연금수급시작연령부터 노년기의 시작시기인 연령상 65세 사이에 발생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일반적인 은퇴시점을 준거로 현재 50대가 인식하는 적절한 은퇴시점은 얼마나 더 가까운지 혹은 먼 미래가 될지를 가늠할 수 있다(Salvatore, Depolo, Fraccaroli, Guglielmi, and Scarchielli, 2008). 따라서 이 기대은퇴연령은 현재의 개인이 처한 경제적, 가족적, 역할 상황을 고려할 때 실제로 노동을 계속해야 하는 필요성 혹은 노동을 중단해야 하는 명분을 반영하는 척도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4) 칼텐센(Carstensen, 2006)은 이러한 노년기의 시간조망방식과 정서적인 조절양식을 감안하여 사회정서선택모델(Socioemotional Selectivity Theory)을 제안하였다. 사회정서 선택모델은 노년기 노인들이 사회적 관계망을 적극적으로 줄이면서 가까운 관계 위주로 관계망 재편을 하게 되는 사회적 과정을 이러한 시간조망의 관점에서 설명한 이론이다.

2. 기대은퇴연령과 결정요인탐색: 생태학적 이론모델 활용

기대은퇴연령에 대한 선행연구는 아직 많이 축적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은퇴과정 뿐 아니라 기존에 은퇴 및 퇴직에 대한 태도, 계획에 관한 연구들, 은퇴결정, 은퇴준비 등 은퇴에 관한 다양한 키워드에서 관찰되는 주요 영역을 중심으로 관련요인을 선정하였다. 기대은퇴연령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파악함에 있어 이 연구는 생태학적 모델을 활용하였다. 생태학 이론의 미시(개인수준), 중시(가족 및 직업역할), 거시체계(거시사회 전망)로 변수들을 구분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개인이 보유한 가장 근접한 자원으로는 경제적 자원과 건강이 개개인이 은퇴 시점을 조정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한경혜, 2008). 실증연구들은 만성질환의 악화, 신체기능의 제한으로 예상외로 은퇴시가 앞당겨 지기도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박경숙, 2003; 석상훈, 2010). 혹은 중년기 이후 오히려 건강을 회복하면서 은퇴를 늦추어 그동안의 근로생애 부족분을 앞당기는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Wang et al., 2008).

경제적 자원과 은퇴결정의 관련성은 이미 여러 경제학 관련연구들을 통해 밝혀진 바이다. 대체로 경제적 자원이 적은 경우 경제자원의 보충을 위해 고령근로를 지속하게 된다는 점이 일반적인 견해인 듯 하다(석재은·이기주, 2010). 반면에 가계자산상태가 양호하거나 경제적 준비를 이룬 경우 이자소득 및 금융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은퇴를 앞당기는 선택이 나타날 수도 있다(백은영, 2011). 그러나 은퇴를 경제적인 차원에서만 접근할 수 없다는 논의도 존재한다. 노후준비를 하고 있더라도 그 적절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면, 오히려 소득확보를 위한 유급노동을 증가시켜야 할 필요성도 있다(우석진, 2010).

은퇴시점을 인식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직업계적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직업적 특성일 것이다. 정년제 직장에 다니는지 여부에 따라 완전은퇴시점은 60세보다 빨라질 수도 혹은 늦어질 수 있다(이승아, 1998; 이성용, 방하남, 2009a, 2009b). 그러나 최근의 징검다리 직업, 퇴직 후 근로생애를 연장할 수 있는 직업으로의 전이가 가능한 직업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정년제보다도 더 늦은 은퇴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 비정규직 종사자는 산발적인 근로생애를 살아가기는 하나, 여러 가지 재정적인 필요로 인해 그러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완전은퇴라는 명확한 구분 없이 고령(빈곤)노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가능성도 있다(박경숙, 2001, 2003; 박경순, 2011). 그런가 하면, 은퇴가 경제적 자원의 보유여부와는 무관하게 직업적 보람, 삶을 지속하는 이유가

자 명분을 준다는 의미부여(방하남, 2009; 장지연, 2003)의 측면 역시 은퇴시점을 가늠하는데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일 것이다.

은퇴시점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가족역할과의 연계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서구의 연구들은 배우자의 퇴직시기와 연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성별 차이가 존재해서 주로 아내가 남편 퇴직시기와 본인의 퇴직 시기를 조율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이성용·방하남, 2009b; 정순돌·김고은·김정원, 2011; 한경혜, 2008; 홍백의·신유미·공주영, 2009). 역으로, 남성의 퇴직은 배우자의 퇴직과 큰 관련성 없이 이루어지기도 하나 다양한 부부갈등 상황을 조장하기도 한다(김정석, 2010). 손자녀 돌봄이나 노부모의 건강문제, 간병상황 역시 오히려 은퇴시기를 빠르게 앞당기기도 하는 것으로 논의되었다(강유진, 2011; Szinovacz, 1989).

한편, 거시체제도 은퇴시점을 인식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전광희, 2003). 특히 이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기대은퇴연령은 미래에 대한 조망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기류가 변화를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주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 림(2000, 2002)에 따르면, 경기전망을 부정적으로 하는 경우 오히려 소득과 건강안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건강행동은 증가하고 위험행동은 자제하여 전체적인 재정소비의 기회를 줄이는 행태가 나타난다. 이렇게 미래경제를 어떻게 예측하는가에 따라 본인의 소득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인의 선택과 행동이 따라가게 된다는 점은 은퇴시점예측에 있어 주목할 부분이다. 이 연구에서는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에 대한 응답자들의 견해가 그들의 은퇴시점을 조율하는데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밖에도, 성역할 특성, 교육수준, 그리고 연령도 은퇴시점을 예측하는 주요요인으로 선행연구(우석진, 2010; 이성용·방하남, 2009a; 한경혜, 2008)에서 지적하고 있어서 분석에 포함하였다.

Ⅲ. 연구방법

1. 분석대상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2008년 수집한 고령자패널 2차년도(KLOSA) 자료 가운데 50~59세의 도시취업자 1,367명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지난 2008년

고령자패널은 2006년 일차조사에 이은 두 번째 패널데이터이다.⁵⁾ 분석대상자 선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은퇴라는 사건이 의미 있는 사건으로 인식되는 도시 거주자를 중심으로 하였다.⁶⁾ 아직 은퇴를 이루지 않은 집단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일반적인 은퇴연령인 60세에 아직 미치지 못한 응답자(50~59)를 타겟 집단으로 하여 고령화패널자료에서 해당연령의 조사대상자를 추출하였다(n=1,833). 기대은퇴연령은 연령변수이기 때문에 분석대상자의 연령대가 동질적인 것이 해석 시 용이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45세부터 포함되어 있는 일부 40대를 제외하고, 분석대상은 50대로 한정하였다. 이러한 연령과 지역적 필터이외에도 무급가족근로자(n=466)의 경우 기대은퇴연령에 대한 무응답 비율이 높아서 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개인(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n=1,367).

2. 측정도구

이 연구에서는 기대은퇴연령에 대한 정보를 파악함에 있어 고령화 패널의 질문지 가운데 “언제 은퇴하기를 희망하십니까?”라는 항목을 활용하였다. 응답자들은 이 설문 문항에 대해 희망하는 연령(세)을 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지의 지침에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은퇴를 하고 싶지 않다”와 같이 은퇴시기를 제한하지 않은 경우, 이 항목에 대해 0으로 코딩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독립변수로는 생태학적 이론의 모형을 근거로 근접환경 및 자원특성의 위계성을 고려하여 변수를 설정하였다. 미시영역으로는 개인의 근접자원인 건강과 재정자원을 측정하였다. 건강자원을 살펴보기 위해 지각된 건강상태(SRH)와 앞으로의 만성질환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BMI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이외에도 분석모델에 포함하지는 않았으나, 2년 간 건강변화와, 활동일제한 일수도 살펴보았다. 재정자원을 분석하기 위해 개인이 일을 통해 벌어들이는 월평균소득과 연간총가계소득수준을 살펴보았다.

5) 지난 2008년은 경제적인 환경이나 연금정책상 매우 중요한 해였다. 시기적으로 2008년은 지난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처음 도입된 후 보험료 20년 납입을 채운 완전노령연금수령자가 등장한 시기였다. 이와 관련된 연금관련 내용이 대중매체를 통해 홍보가 되었고, 2007년 연금법 개정 이후 새롭게 시행되는 각종 정책에 대한 소개가 본격화되던 시기였다. 한편, 2008년은 세계 금융위기가 하반기를 강타한 때로, 은퇴시기에 대한 다양한 담론들이 팽배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1차년도 자료보다 2차년도 자료에서 나타나는 기대은퇴연령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6) 농촌거주자는 농업종사자가 대부분일 것으로 보이며, 일차산업의 특성상 근로생애의 종료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음을 고려하였다. 또한 일부 농촌거주자 가운데는 퇴직 후 귀농하여 농사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표 1> 분석대상자의 특성(n=1,367)

건강자원	지각된 건강(5점척도)	건강이 나쁘다 (1-3점)	101	(7.40)
		건강이 좋다(4-5점)	1,266	(92.60)
	2년간 건강변화	건강이 나빠졌다	131	(9.60)
		변화없다/ 건강이 좋아졌다	1,236	(90.40)
	근로제한	건강 때문에 근로제한 있음	155	(11.30)
	근로제한 없다	1,212	(88.70)	
경제적 자원	BMI 지수	과체중 및 비만	579	(42.4)
		정상 (저체중도 포함)	778	(57.6)
경제적 자원	개인 월근로소득 (단위: 만원)		217.3	(220.70)
	연간 가계소득 (단위: 만원)		3781.5	(3119.25)
가족역할	배우자 역할지위	배우자 없음	119	(8.70)
		배우자 있음	1,248	(91.30)
	간병 및 수발도움	ADL 제한 가족원 있음	79	(5.80)
		ADL 제한 가족원 없음	1,288	(94.20)
	손자녀 유무	손자녀가 있음	296	(21.70)
	손자녀 없음	1,071	(78.30)	
직업역할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834	(61.00)
		고용주/자영업자	533	(39.00)
	종사상 지위변화	무응답	163	(11.90)
		변화 있었음	13	(1.00)
		변화 없었음	1,191	(87.10)
미래전망	주당 근무시간		49.9	(15.19)
	직업만족도 (범위: 3-15)		7.46	(1.68)
	미래에 대한 부정적 전망 (범위: 0-10)		2.8	(1.00)
연령		(범위: 50-59)	53.0	(3.03)
성별		남성	897	65.62
		여성	470	34.38
교육수준		고졸 혹은 중졸이하 학력	1096	(80.20)
		전문대/대졸 이상 학력	270	(19.80)

가족 및 직업역할은 중시영역으로 파악하였다. 가족역할의 특성을 파악하는 지표로 혼인상태(유배우/무배우), 손자녀 유무, 그리고 가족 내 ADL 기능장애를 겪는 가족원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혼인상태는 배우자 역할을 가늠하는 특성으로, 그리고 손자녀 유무나 기능장애 가족원은 돌봄노동에 대한 가족육구특성을 파악하는 근거로 삼았다. 직업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직업지위(임금근로자/자영업자), 주당근무시간, 직업만족도(업무내용 만족도, 소득만족도를 합산함)를 살펴보았고, 분석모델에 포함하지는 않았으나 직업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종사상지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거시영역으로는 고령화패널의 다양한 항목 중에서 우리나라의 앞으로 경제적

전망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았다. 고령화패널에서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은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진술문에 대해 의견의 수준(점수범위: 0~10점의 10점 리커트 척도)을 살펴보았는데, 이 항목을 활용하여 경제에 대한 부정적 전망의 변수를 구성하였다. 이밖에도 성별과 연령, 그리고 교육수준을 살펴보았으며, 측정된 변수와 변수값의 구분은 <표 1>의 내용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3. 분석대상자의 특성

이 연구의 분석대상자 1,367명의 특성을 측정도구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대상자 가운데서는 남성이 897명, 여성이 470명으로 남성응답자의 수가 여성응답자 수보다 약 2배가량 많았다.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약 53로 나타났고, 대다수가 고졸 혹은 그 이하의 학력자(80.2%)였다.

건강자원을 살펴보면, 전체의 9.6% 가량은 1차 조사 시기인 2006년에 비해 2008년 2차 조사 때 건강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문제 때문에 직장일을 수행하지 못하고 휴식을 취한 날이 있었던 응답자도 11.3% 정도의 규모로 관찰되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응답자는 아직 자신들의 건강이 좋다고 지각(92.6%)하고 있었으며, 건강상 변화도 없거나 오히려 좋아졌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90.4%에 이르렀다. 경제적 자원을 보게 되면, 응답자가 일을 통해 벌어들이는 월평균소득은 217만원수준이었으며, 응답자 가구의 연평균가계소득은 응답당시(2007년 기준) 3,780여만원 수준이었다.

다음으로 가족역할상황을 살펴보자. 전체의 91.3%가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나머지 8.7%만이 이혼이나 사별 혹은 미혼으로 배우자 없이 혼자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약 5.8%만이 가족원 가운데 ADL 기능장애를 겪는 구성원이 있다고 답했다. 실제로 가족 내 돌봄노동에 대한 수요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손자녀 유무에서는 전체의 21.7%가 손자녀가 있다고 응답했는데, 응답자의 평균연령이 50대 중반인 것으로 볼 때, 이들의 손자녀는 비교적 어린나이의 손자녀일 것으로 판단된다.

응답자의 61%가 임금근로자였으며, 나머지 39%는 자영업자로 나타나서, 분석대상자들 가운데 임금근로자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지난 2년간 직업상 변화를 겪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13명(1%) 만이 직업지위 상의 변동을 겪었다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11%는 응답을 거부하거나 무응답처리 되었다.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부정적 전망(경기전망)에서 응답자들은 전체 10점 척도에서 2.8점으로 대체로 미래 경기 인식이 부정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IV. 연구결과

1. 기대은퇴연령의 분포와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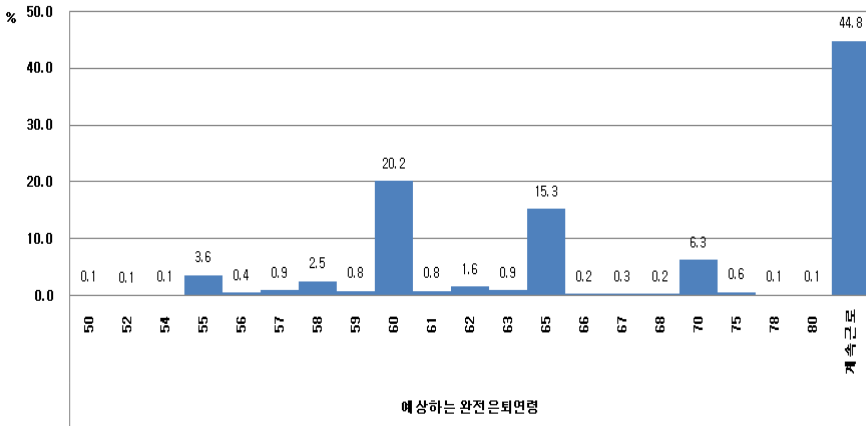
응답자들이 “언제 은퇴하기를 희망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답한 연령분포를 살펴본 결과가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1>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은퇴시기를 묻는 질문에서 “상황이 허락되는 한 은퇴시기를 제한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44%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은퇴가 필수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근로생애를 마감하고 싶지 않은 이른바 ‘계속근로’ 집단의 규모가 작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과 같은 노후소득보장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65세 이상 고령자의 소득활동 중단은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연구결과로 보면, 50대 취업자의 상당수는 소득활동을 중단하는 것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근로생애를 노년기까지 연장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기대은퇴시기를 응답한 사례 중에서는 빈도가 높게 나타난 응답은 연령 60세였다(전체 20.2%). 완전은퇴를 단행하겠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상당수가 노인으로 분류되는 65세 이전에 은퇴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완전은퇴시기를 정확하게 65세 라고 답한 경우도 전체의 약 15%를 차지하여 그 다음 순위를 나타내었고, 70세를 응답한 사례는 6.3%가량이였다. 매우 적은 사례이기는 하나 50대 은퇴를 희망하는 응답자(55세: 3.5%, 58세: 2.5%) 들도 관찰할 수 있었다. 분석대상자들의 연령차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실제로 은퇴자체 혹은 은퇴시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현재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몇 개의 연령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은 그림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적은 빈도를 나타내어, 은퇴시점에 대한 상당히 명확한 연령인식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기대은퇴연령에 대한 패턴이 몇 개의 크고 작은 범주형의 패턴이 관찰됨에 따라 이후 기대은퇴연령 분석은 범주형 변수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정상적인 60~65세 은퇴를 기점으로 3개의 집단인 50대 빠른은퇴기대집단(이하 빠른은퇴), 60세 전반기대은퇴(이하 일반은퇴), 그리고 65세 이상부터 70세 늦은 기대은퇴집단(이하 늦은 은퇴)과 이 문항에서 계속근로를 희망한 집단 1개의 총 4개 집단에 대한 차후 분석을 진행하였다.

2. 기대은퇴연령의 집단별 차이

<그림 1> 기대은퇴연령 분포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응답자들의 기대은퇴연령을 중심으로 네 집단으로 나눈 후 각 집단을 비교한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대체로 늦은은퇴집단의 평균연령은 54세로 연령이 많았고, 계속근로도 이와 근사치인 53.7세로 나타났다. 반면, 빠른은퇴집단의 평균연령은 51세로 연령상 늦은은퇴집단에 비해 적었고, 이러한 평균연령에서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23.10$, $p<0.001$). 은퇴시점에 대한 집단별 평균을 비교해 본 결과, 빠른은퇴집단이 생각하는 은퇴시점은 평균 56.4세로 이들은 현재 평균연령과 격차를 살펴볼 때, 본인의 근로생애가 약 5년 남짓 남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늦은은퇴집단이 희망하는 은퇴시점은 66.8세로, 약 12년 정도 근로생애가 남아 있다고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십대 전반집단보다도 오십대 후반집단이 기대은퇴시점을 더 길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기대여명을 짧게 인식하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긴박감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ang and Carstensen, 2002). 그런데 이 노동생명과 관련해서는 50대 내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근로생애에 대해서도 더 길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인이 노동시장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경우, 노동연장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여성은 빠른은퇴를 기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남성은 늦은은퇴를 기대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성별 차이가 있었다

<표 2> 기대은퇴시점에 대한 집단별 특성

	기대은퇴연령 네 집단				F / χ^2	
	빠른은퇴 (50대 은퇴)	일반은퇴 (60-64세)	늦은은퇴 (65세-70대)	계속근로		
n	117	321	317	612		
(Within %)	8.60%	23.50%	23.20%	44.80%		
현재연령 (평균, 표준편차)	51.6 (2.3)	52.8 (2.9)	54.0 (3.2)	53.7 (3.1)	23.10***	
기대은퇴연령 (평균, 표준편차)	56.4 (1.8)	60.3 (0.8)	66.8 (2.9)	-	179.60***	
지각된 노동생애기간 (년)	4.9	7.5	12.8	-		
성별	남성	50.0 42.7%	188.0 58.6%	246.0 77.6%	413.0 67.5%	55.35***
	여성	67.0 57.3%	133.0 41.4%	71.0 21.4%	199.0 32.5%	
교육수준	고졸이하	91.0 77.8%	249.0 77.6%	249.0 78.8%	507.0 82.8%	4.9
	전문대/대학 이상	26.0 22.2%	72.0 22.4%	67.0 22.2%	105.0 17.2%	

***: p<0.001

($\chi^2 = 53.35, p < 0.001$). 근로에 대한 인식에서 관찰되는 성별차이는 생계부양자 역할에 대한 기대수준의 차이(Soidre, 2005), 노동시장에서의 젠더차별 등 다양한 특성(Brown, 2009; Szinovacz, 1986)으로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바 있는데, 이 연구결과 역시 그러한 기존논의의 연장선에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집단 별로 교육수준에서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으나, 예상외로 교육수준에서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3. 다항로지결과

위의 분석을 통해 일반적인 은퇴시점과 다르게 과연 누가 빠른은퇴/늦은은퇴 혹은 계속근로를 선택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기대은퇴연령 범주별로 구체적인 프로파일을 얻기 위해 분석을 다항로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로 설정한 각 특성들이 기대은퇴연령과 맺고 있는 관련성을 점검하는 작업이 필요하여, 통제변수(성, 연령, 교육수준)를 제외한 분석을 먼저 실시한 후 뒤이어 통제변수를 포함한 최종모형을 제시하였다.

사실상 계속근로집단은 문항에 대한 응답의 차원에서 해당 없음과 유사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기대은퇴시점 범주를 비교함에 있어, 은퇴연령을 제시한 집단과 계속근로를 선택한 집단 간에 체계적인 차이가 있는지 점검이 필요했다. 분석절차는 첫 번째 단계에서 계속근로와 비교한 3집단(빠른은퇴, 일반은퇴, 늦은은퇴)의 차이를 비교하였다(<표 3> 참조).

<표 3> 은퇴예상집단과 계속근로집단 관련요인 비교

	기본모형			통제모형		
	계속근로와 비교			계속근로와 비교		
	빠른 은퇴	60-64세 은퇴	늦은 은퇴	빠른 은퇴	60-64세 은퇴	늦은 은퇴
	OR	OR	OR	OR	OR	OR
지각된 건강(ref. 건강이 좋음)						
건강이 나쁨	1.29	1.12	0.88	1.47	1.17	0.85
Body Mass Index (ref. 정상)						
과체중 및 비만	0.80	1.06	1.14	0.81	1.08	1.12
개인월소득 (month)(ref. 200만원 +)						
200만원 이하(mode)	1.54*	1.10	0.83	0.60	0.82	1.00
연간가계총소득 (yearly)(ref + 76%)						
0- 25% 이하	0.17***	0.44***	0.57*	0.27***	0.52*	0.51***
26%-50%	0.30***	0.41***	0.48***	0.35***	0.44***	0.46***
51%-75%	0.52***	0.64*	0.61*	0.52*	0.65*	0.60*
혼인상태 (ref. 유배우)						
무배우	0.88	1.26	0.97	0.54	1.00	1.17
손자녀 여부 (ref. 손자녀 없음)						
손자녀 있음	0.41**	0.76	1.18	0.67	0.93	1.15
주당근무시간 (Weekly)(ref. +56시간 초과)						
35시간 이하	1.78+	0.83	1.29	1.56*	0.81	1.29
36시간 56시간 이하	0.91	1.16	1.11	0.87	1.16	1.10
직업만족도 (ref. 만족도 높음)						
만족도 낮음	1.06	1.03	0.94	0.96	0.98	0.96
종사상지위 (ref. 자영업/고용주)						
임금근로자	4.43***	2.11***	0.71*	5.09***	2.18***	0.71*
미래경기전망 (ref. 긍정적)						
부정적	1.55+	1.51*	1.04	1.64*	1.53*	1.04
연령				0.80***	0.92***	0.80***
성별 (ref. 남성)						
여성				3.47***	1.68***	0.47***
교육수준 (ref. 고졸이하)						
전문대/대학이상 학력				1.16	0.98	1.06
Chi-square		167.80***			265.09***	
df		39			48	
Pseudo-R square (Nagelkerke)		0.13			0.19	

+p<.10 *p<0.05, **p<0.01 ***p<0.001

주) 간병 및 수발부담의 항목을 투입하였으나 다항로지분분석을 수행함에 있어 사례수 부족으로 계수추정이 불가능하여 최종 모형에서는 제외하였음.

두 번째 단계로 기대은퇴시점을 밝힌 응답자들을 중심으로 한 집단 내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일반적인 은퇴시점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빠른은퇴와 늦은은퇴가 선택되는 차이를 파악하였다(<표 4> 참조).

〈표 3〉의 기본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난 항목들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준거집단인 계속근로집단과 비교해 볼 때, 빠른은퇴집단에서는 취업을 통한 개인소득 상 저소득집단일 가능성이(OR = 1.54)이 높았지만, 총가구소득수준 면에서는 낮은 소득층에 해당할 가능성이 적었다(0~25%: OR = 0.17, 25~50%: OR = 0.30, 50~75%: OR = 0.52). 말하자면, 본인의 소득이 전체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경우로 판단된다. 가족자원으로 보면, 준거집단에 비해 빠른은퇴집단에서 손자녀가 있을 확률 역시 낮았다(OR = 0.41). 가족돌봄 부담이 빠른은퇴를 유인하는 것은 아님을 뜻한다. 이들 빠른은퇴의 현재 직업역할수행상황을 살펴보면, 준거집단(계속근로집단)에 비해 임금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았으며(OR = 4.43), 단시간 근로를 하고 있을 가능성(0~35hr work: OR = 1.78)이 또한 높게 나타났다. 미래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OR = 1.55).

노년기 전이의 시기이면서 연금수급의 적절한 시점이라고 인식되는 60~64세 은퇴(일반은퇴)를 희망하는 집단과 계속근로집단의 차이점은 가계소득과 미래에 대한 전망에서 드러났다. 일반은퇴시점을 선택한 집단은, 가계 소득에서 낮은 소득분위에 속할 위험이 적었으며(0~25%: OR = 0.44, 25~50%: OR = 0.41, 50~75%: OR = 0.64), 대체로 임금근로자들이 해당할 가능성은 2배가량 되었다(OR = 2.11). 또한 미래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많았다(OR = 1.5).

늦은 은퇴와 계속근로집단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취업형태에서 나타났다. 늦은은퇴는 계속근로집단보다 임금근로자일 가능성이 낮았다(OR = 0.71). 이는 늦은은퇴집단이 자영업이나 자기사업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말해준다. 또한 가계소득으로 보더라도 계속근로에 비해 취약계층에 속할 가능성은 낮았다(0~25%: OR = 0.57, 25~50%: OR = 0.48, 50~75%: OR = 0.61). 늦은은퇴를 예상하는 집단은 계속근로집단에 비해 현재 가계소득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통제모형에서 성과, 연령, 그리고 교육수준이 통제되자 약간의 변화가 발생하였다. 가계소득과 직업역할의 일부 특성을 제외한 나머지 특성의 영향력은 사라졌다. 빠른은퇴 기본모형에서 발견되었던 손자녀의 유무, 그리고 응답자 본인의 월평균소득의 효과 역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4〉는 계속근로 범주를 제외한 상태에서, 기대은퇴연령을 제시한 755명의 응답자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여기에서는 준거집단을 일반은퇴(60~64세전후)집단으로 삼았고, 이 준거집단을 중심으로 누가 빠른은퇴 혹은 늦

<표 4> 60-64세 은퇴기대집단과 비교한 빠른은퇴/늦은은퇴기대집단의 특성

	기본모형		통제모형	
	빠른은퇴 OR	늦은은퇴 OR	빠른은퇴 OR	늦은은퇴 OR
지각된 건강(ref. 건강이 좋음)				
건강이 나쁨	1.27	0.70 +	1.29	0.66 +
Body Mass Index (ref. 정상)				
과체중 및 비만	0.76	0.99	0.78	0.94
개인월소득 (ref. 200만원)				
200만원 이하(mode)	1.36	0.67 +	0.65	1.07
연간가계총소득 (ref + 76%)				
0- 25% 이하	0.42*	1.37	0.55	1.08
26%-50%	0.77	1.19	0.86	1.14
51%-75%	0.81	0.94	0.80	0.92
혼인상태 (ref. 유배우)				
무배우	0.66	0.68	0.51	1.08
손자녀 여부 (ref. 손자녀 없음)				
손자녀 있음	0.53 +	1.64*	0.73	1.27
주당근무시간 (Weekly)(ref. +56시간 초과)				
35시간 이하	2.16*	1.67	2.09*	1.60
36시간 56시간 이하	0.78	0.97	0.78	0.89
직업만족도 (ref. 만족도 높음)				
만족도 낮음	1.08	0.89	1.06	0.93
종사상지위 (ref. 자영업/고용주)				
임금근로자	2.12**	0.32***	2.36**	0.30***
미래경기전망 (ref. 긍정적)				
부정적	1.06	0.69*	1.12	0.64*
연령			0.87**	1.14***
성별 (ref. 남성)				
여성			2.45**	0.34***
교육수준 (ref. 고졸이하)				
전문대/대학이상 학력			1.21	1.08
Chi-square	120.44***		214.83***	
df	26		32	
Pseudo-R square (Nagelkerke)	0.17		0.29	

+p<.10 *p<0.05, **p<0.01 ***p<0.001

주) 건강 및 수발부담의 항목을 투입하였으나 다항로지분석을 수행함에 있어 사례수 부족으로 계수추정이 불가능하여 최종 모형에서는 제외하였음.

은 은퇴를 희망하는지 그 특징을 파악하는 다항로지분석을 실시하였다.

기본모형을 살펴보면, 준거집단(60~64세 은퇴집단)과 빠른은퇴의 차이는 가계소득, 손자녀 유무, 근무시간과 종사상지위에서 나타났다. 준거집단인 60세 전후의 은퇴를 예상하는 집단과 비교해 볼 때 늦은은퇴 역시 월평균소득, 손자녀가 있을 가능성, 종사상 지위가 관련이 있었고, 이밖에 지각된 건강과 미래에

대한 전망에서도 차이가 발견되었다.

다만, 이러한 특성들은 통제변수들을 투입하자, 빠른은퇴에서 개인월평균소득 특성의 효과와 손자녀유무의 특성의 효과는 사라졌다. 늦은은퇴의 특성으로 현재 개인월평균소득에서의 차이 역시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취업형태는 여전히 유의미성을 확보하였다. 빠른은퇴에 해당하는 경우, 임금소득자일 가능성이 높았고, 늦은은퇴는 반대로 임금소득자일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늦은은퇴를 기대하는 50대는 이미 노동생애를 연장이 비교적 자유로운 직업군에서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말해준다. 늦은은퇴를 기대하는 집단은 기본모형에서 준거집단에 비해 건강을 나쁘게 지각할 가능성은 낮았다. 대체로 정상은퇴에 비해 건강이 양호할 경우 늦은은퇴를 기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한편, 빠른은퇴와 늦은은퇴 모두에서 돌봄노동이 은퇴를 유인하는 효과는 발견하지 못했다. 오히려 늦은은퇴집단에서 손자녀가 있는 것이 관찰되고 있어서, 은퇴에 대한 기대와 돌봄노동의 필요성간에는 별다른 관련성이 없다고도 볼 수 있다. 연령이 통제되자 돌봄노동의 효과가 사라진 점 역시 손자녀 유무가 이 연구에서는 단지 생애단계상의 위치를 나타내는 특성임을 말해준다. 늦은은퇴 집단이 자녀를 출가시키고 이미 조부모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가족역할수행보다 직업역할에 대한 우선순위나 의미부여가 상당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V. 토의 및 결론

개인차원에서 은퇴를 이루는 궤적이 다양하게 전개되는 만큼, 집합적인 수준에서는 근로생애를 마감하는 시점은 더욱 모호해지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은퇴예비집단의 은퇴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오십대 은퇴예비집단 가운데 누가, 언제 은퇴를 생각하는 그 인식을 기대은퇴연령 정보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 발견된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결과와 기대은퇴연령에 대한 질문에서 은퇴연령을 제한하지 않고 계속근로의 의지를 표명한 사례가 전체 분석대상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였다. 은퇴시점을 65세 이후로 조금 늦게 인식한 경우도 전체의 25%를 차지한다. 다시 말해서, 은퇴를

앞둔 취업 50대의 3분의 2가 일반적으로 노년기라고 알려진 65세 이후까지도 근로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기은퇴를 걱정하면서 빨라진 은퇴시기에 대한 논의(이가옥·이지영, 2005)가 팽배했음을 상기한다면, 매우 급격한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50대가 근로생애기간을 길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시간조망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근로에 대한 목표지향이 뚜렷하고, 근로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와 사회적 네트워크를 작동시키는 고령인구가 상당수 존재함을 시사한다.

둘째, 이처럼, 잔존하는 근로생애를 빠르게 혹은 더 늦게 인식하는데에는 그에 따르는 사회적 상황과 원인이 상이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계속근로와 빠른은퇴기대집단, 늦은은퇴기대집단의 프로파일을 구성해보았다. 먼저, 빠른은퇴를 예상하는 집단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들은 건강자원면에서 특별한 취약하지 않았으며, 또한 이들의 특성에서 돌봄역할의 중요성도 부각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빠른은퇴과정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건강제약, 돌봄노동에 대한 가족의 요구 등 선행연구들의 지적해온 특성과는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백은영, 2011; 한경혜, 2008). 그에 비해, 단시간 근로와 취업형태는 비교적 명확한 빠른은퇴집단의 특징으로 파악되었고 이는 기존연구(박경숙, 2003)와 유사한 경향성이었다. 미래에 대한 경기 전망인식도 부정적인 특징이 발견되었다. 이처럼 이미 50대 전반에 근로시간을 단축한 특성으로 볼 때, 고령에 대한 연령제약이 특별히 많은 직업군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건강이나 가족역할 특성보다는 그들의 불안정한 직업특성, 낮은 임금이 그들의 근로생애를 짧게 인식하는데 더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늦은은퇴기대집단은 준거집단에 비해 본인의 건강상태를 양호하게 지각하는 특징이 있었다. 비록 통제변수 후에 그 영향력은 사라졌지만, 이들이 늦은은퇴를 예상함에 있어 건강함이 그 바탕이 되어 있음을 짐작케 한다. 미래의 경제상황 전망에서도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특징이 발견되었다. 늦은은퇴기대집단은 돌봄노동으로부터도 비교적 자유로운 것으로 판단된다. 손자녀가 존재하더라도 손자녀 돌봄을 위해 은퇴를 선택할 가능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노동생명을 상대적으로 길게 예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년제 개념에서 자유롭거나, 연령제약이 심하지 않은 직업군에 종사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임금 근로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낮게 나타나는 패턴에서도 확인이 되었다. 고령에도 노동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일을 찾았을 가능성, 이미 장기적인 안목에서 고령노동이 가능한 직업군으로 이동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은퇴시기를 제한하지 않은 계속근로집단은 고령노동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늦

은은퇴와 유사점이 많았다. 실제로 현재 수행하는 직업에 대해서도 또한 이들은 직업만족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지 않았으며, 미래에 대한 경기전망에서도 부정적이지 않았다. 이처럼 은퇴를 연기하거나 혹은 은퇴시점을 제한하지 않을 만큼 일의 중요성이 이들의 생애과정에서 우선성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소득안정을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여윤경·정순희·문수재, 2005; 이정우, 2006). 한편으로는 노동시장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 노동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았던 현재 중년층의 일에 대한 신념과 가치관 또한 읽어볼 수 있다(이가옥·이지영, 2005; 장지연 외, 2009).

이러한 근로지향적인 계속근로집단과 늦은은퇴집단간에는 차이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가계소득차원에서는 늦은은퇴집단은 계속근로집단에 비해 가계소득이 높았고, 종사상 지위상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고령 취업자 내에서도 소득이나 혹은, 짐작컨대, 고령노동을 하는 목적에서 차별적인 집단이 공존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기존연구에 따르면, 합리적인 은퇴시점은 본인의 임금과 자산이 감소하는 공백을 연금이 채워주어 은퇴전후의 소득안정성이 연락처 할 수 있는 시점이다(Brown, 2009). 그러나 연금으로 얻는 소득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연금보험료의 수익률상 가장 최적의 시기를 찾기 위해 은퇴를 연기할 수도, 혹은 연금수급과 고령노동을 병행하면서,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을 퇴장할 시점을 가늠할 가능성도 있다(김원섭·이정수·한정림, 2009). 이는 노년기 노동시장의 복귀가 노년기에 빈곤을 완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우석진, 2010). 다만, 고령자 노동시장의 문이 열리면서 그 속에서의 경쟁 또한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감지된다. 점에(한국일보, 2012)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이 연구에서 고령근로를 지향하는 집단과 빠른 은퇴를 인식하는 집단의 차이가 직업특성에 의해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되는 점을 살펴볼 수 있었다. 노년기로의 전환기에 찾아오는 작은 기회조차도 그 속에 점유하는 자/점유하지 못하는 자의 비극이 생애 후반기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기대은퇴연령이나 시간조망에 대한 분석이 서구에서는 분석되고 있으나 아직 국내연구는 경제학 분야에서 소수 발견될 뿐 극히 제한적인 수준으로 수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매우 초기단계의 탐색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기대은퇴연령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사회적 범주 존재할 수 있지만, 모두 담아내지 못했다. 더욱이 이 연구가 활용한 자료에서 은퇴준비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재료가 되는 변수가 많지 않았다는 점 역시 아쉬운 부분이었다. 앞으로 은퇴예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

층인터뷰와 같이 질적 자료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과연 누가 은퇴시기를 늦추면서 근로생애를 연장할 수 있는지, 연금에 대한 인식은 그들의 은퇴시점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시간조망의 관점에서 근로생애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관계망을 살펴보는 구체적인 연구주제도 제안하고자 한다. 취업 자리를 찾고, 취업을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자원과 네트워크가 이용되는지, 이러한 과정은 그들이 애초에 근로생애를 시작할 때 전략과 또 어떻게 유사하고/차별적인지 그 구체적인 과정에 대한 정보는 고령노동을 이해하는데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은퇴과정에서 시기성과 미래조망 같은 시간적 차원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고려도 요구된다.

〈참고문헌〉

- 강유진 (2011) “손자녀 돌봄과 조부모의 심리적 복지” 《한국인구학》 34(1): 73-97.
- 김원섭·이정우·한정림 (2009) “근로와 연금수급의 병행 활성화를 위한 국민연금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조기노령연금과 재직자 노령연금의 개선방안” 《사회보장연구》 25(4): 187-216.
- 김정석 (2010) “준고령층 부부의 식사관련행위” 《한국인구학》 33(3): 123-142.
- 노동리뷰 (2009) “통계프리즘: OECD 국가의 은퇴시기” 85-87 한국노동연구원
- 박경숙 (2001) “중장년기 종사상지위와 은퇴과정의 다양성” 《노동경제논집》 21(1): 177-205.
- 박경숙 (2003) “55세이상 고령자의 노동시장이탈과정: 은퇴의 유형화에 대한 함의” 《노동정책연구》 3(1): 103-140.
- 박경순 (2011) “생애과정 탈정형화의 사회정책적 함의” 《사회보장연구》 27(1): 293-316.
- 박원란 (2001) “생명표에 의한 한국 남성의 노동기간 변화” 《통계분석연구》 6(1): 1-17.
- 방하남 (2009) “점진적 은퇴와 부분연금제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백은영 (2011) “베이비부머의 은퇴준비와 준비유형결정요인 분석” 《사회보장연구》 27(2): 357-383.
- 석상훈 (2010) “중고령자의 은퇴와 건강상태” 한국사회보장학회 추계정기학술대회 및

- 복지재정 DB 학술대회 자료집 209-228.
- 석재은·이기주 (2010)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활동 특성별 유형화와 다층소득보장전략” 한국사회보장학회 추계정기학술대회 및 복지재정 DB 학술대회 자료집 25-74.
- 여윤경·정순희·문숙재 (2005) “한국가계의 은퇴준비에 관한 연구” 《소비문화연구》 10(3): 129-155.
- 우석진 (2010) “한국고령노동자의 부분은퇴와 노동시장 복귀” 《한국노년학》 30(2): 499-513.
- 우해봉 (2011) “다중상태 생명표 모형을 활용한 중고령층의 근로 및 은퇴생애과정 연구” 《조사연구》 12(1): 65-88.
- 은기수·박수미 (2002) “여성취업이행 경로의 생애과정 씨퀀스 분석” 《한국인구학》 25(2): 5-32.
- 이가옥·이지영 (2005) “남성 연소노인의 은퇴 후 적응과정과 노년기 조망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7(1): 93-120.
- 이성용·방하남 (2009a) “성·연령별 중고령자 노동자의 취업 양극화 분석” 《한국노년학》 29(2): 593-610.
- _____ (2009b) “중고령 노동자의 퇴직과정에 관한 일 연구” 《사회보장연구》 25(3): 59-82.
- 이승아 (1998) “중년기 직장남성의 퇴직에 대한 태도와 퇴직 후 생활계획”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재열 (1996) “여성의 생산노동과 재생산노동의 상호연관성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학》 19(1): 5-44.
- 이정우 (2006) “고령자의 점진적 은퇴지원을 위한 보충소득지원제도 연구” 김해: 인제대 산학협력단
- 장경섭 (2000) “가족이념의 우발적 다원성: 압축적 근대성과 한국가족” 한국사회학회, 2000년 후기사회학대회 발표문 요약집 (pp 81-84).
- 장지연 (2003) “중고령자의 경력이동:대안적 은퇴과정으로서의 근로시간 단축과 자영업 창업의 비중” 《한국사회학》 37(2): 95-122.
- 장지연·신동균·신경아·이혜정 (2009) 《중고령자 근로생애사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정책보고서.
- 전광희 (2003) “미국인의 조기퇴직 역전현상과 고령자 사회정책의 미래” 《한국인구학》 26(1): 115-141.
- 정순돌·김고은·김정원 (2011) “은퇴한 배우자를 둔 중고령 여성의 결혼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16(1): 137-155.

- 최옥금 (2011)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은퇴과정에 관한 연구: 생애 주된 일자리와 가
교일자리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31(1): 15-31.
- 한경혜 (2008) “라이프코스 관점에서 본 은퇴경험의 남녀차이” 《한국사회학》 42(3):
86-118.
- 한국일보 (2012) “앞아 기다리는 노인엔겐 기회 없어... 고령자도 스펙 준비를” (2012
년 5월 29일자)
- 홍백의 · 신유미 · 공주영 (2009) “은퇴결정에 대한 배우자의 영향연구” 《사회복지정
책》 36(2): 503-522.
- 황명진 · 정승환 (2011) “우리나라 고령화 현상과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추계” 《한국인
구학》 34(2): 113-133.
- 황수경 (2005) “노동생명표 작성법을 이용한 은퇴연령 추정” 《노동리뷰》 45-55.
- Barnes-Farrell, J.L. (2003) “Beyond Health and Wealth: Attitudinal and
Other Influences on Retirement Decision-Making” In G.A. Adams
& T.A. Beehr (Eds.) *Retirement: Reasons, Processes, and Results*
(pp.159-187) New York: Springer.
- Bernheim, B.D.(1989) “The Timing of Retirement: A Comparison of
Expectations and Realizations” in D.A. Wise (ed.) *The Economics
of Aging*(p 335-355)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rown, K.(2009) “The Link between Pension & Retirement Timing:
Lessons from California Teachers” NCPI report.
- Carstensen, L. , P.M. Isaacowitz, Susan Charles (1999) Taking Time
Seriously: A Theory of Socioemotional Selectivity. *American
Psychology* 54(3):165-181.
- Carstensen, L. (2006). The Influence of a Sense of Time on Human
Development. *Science* 30 312(5782): 1913-1915.
- Denton, Frank, T. & Byron G. Spencer (2009) “What is Retirement? A
Reveiw and Assessment of Alternative Concepts and Measure”
Canadian Journal of Aging 28(1): 63-76.
- Han, Shin-Kap & P. Moen (1999) “Clocking Out: Temporal Patterning
of Retirement”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5(1): 191-236.
- Kvist, J., J Fritzell, B Hvinden and O Kangas (2012) *Changing Social
Equity: The Nordic Welfare Model in the 21st Century*. Bristol: The
Policy Press.
- Lang,F.R. & L. Carstensen (2002) “Time Counts: Future Time

- Perspective, Goals, and Social Relationships” *Psychology of Aging* 17(1): 125-139.
- Moen, P. (2003) “Midcourse: Navigating Retirement and New Life Stage” In Mortimer, J.T., and M.J. Shanahan (eds) *Handbook of Life Course* (pp 269-291), New York: Kluwer Academic Publication.
- Park, K.S. (2006) “Family and Work Ties of the Korean Elderly” *Population and Society* (1):1-26.
- Ruhm, C.J. (2000) “Are Recessions Good for Your Health?”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5(2):617-650.
- Ruhm, C.J. (2002). “Does Drinking Really Decrease in Bad Times?” *Journal of Health Economics* 21(4):656-678.
- Salvatore, Z., M Depoli, F Fraccaroli, D Guglielmi, G Scrcchielli (2008) “Psychosocial Influences on The Preference for Early or Late Retirement?” *Career Development International* 13(2): 150-167.
- Soidre, Tiiu (2005) “Retirement-age Preference of Women and Men Aged 55-64 years in Sweden” *Aging & Society* 25: 943-963.
- Szinovacz, M.E. (1989) “Decision Making on Retirement Timing” In D. Bringer & J. Jaccard (Eds.) *Dyadic Decision Making* (pp. 286-310). New York: Springer.
- Szinovacz, M.E. (1986) “Preferred Retirement Timing & Retirement Satisfaction in Women”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24(4): 301-317.
- Wang, M., Y, Zhan, S. Liu, & K.S. Shultz (2008) “Antecedents of Bridge Employment: A Longitudinal Investigat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3(4): 818-830.

Preferred Timing for Full-Retirement: Who Wants to Retire Early?

Seung-Eun Cha

This study analyzed plans for retirement by focusing on preferred retirement timing(PRT) measure. Current pension program show rather strong guideline about the timing of full-retirement. This study asked whether the middle age group are willing to retire correspond to the policy guidelines or not. Research sample came from 2008 KLOSA data, recruiting 1,367 workers who are residing in cities or in metropolitan area (women: 34.8%). I have analyzed one item question asking "In what age do you want to fully retire?", The results showed that, about two third of respondents declared they do not want to retire unless they have health problems, or would expect to retire no earlier than age 70. However, a third of respondents expected normal retirement coming between 60~64. Second, the determinants of timing for retirement were differ by PRT. Social determinants, such as gender, short work hours, being employed, and higher status in family income were associated with early PRT. While, good health status, positive view on the future economics were highly associated with late PRT. The results reveal that the timing of retirement is getting more diverse and obscure in the individual level.

Key Words: Retirement, Preferred Timing, Pension, Time Perspective